

壬亂期 의병문인이 바라 본 남송

— 〈詠南宋史〉의 주제의식 및 그 시적 형상화

田 娟*

- | | |
|---------------------------|---------------------|
| I. 머리말 | III. 〈영남송사〉의 주제적 특징 |
| II. 〈영남송사〉의 창작 배경과 작품의 개관 | IV. 〈영남송사〉의 예술적 특징 |
| | V. 맺음말 |

• 국문초록

<영남송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참여했던 剡湖 陳景文이 ‘미개국에 의해 깃밟힌 문명국’이라는 남송의 ‘신화’의 중복과 재구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투영하고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표출하고자 쓴 장편 연작 영사시다.

본고는 이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제적·예술적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영남송사>는 칠언절구로 이루어진 총 69수의 연작시이다. 그 내용은 79명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형상화와 ‘고종화의’라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작품 속 인물을 남송의 군주, 남송의 臣·民, 금·원 출신의 인물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오랑캐 문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임진왜란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함께 군주의 덕목, 忠義 정신, 華夷觀 등에 관한 작자의 생각 등을 살필 수 있다.

본 작품의 예술적 특징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여러 작품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로 볼 때 비교적 치밀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분명한 포커스의 존재, 종적 축과 횡적 폭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별 작품이 조직적·유기적으로 묶이어 정밀한 구조를 갖춘 하나의 결합체를 형성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전임강사

<영남송사>를 이루는 개별 작품을 한 편 한 편 살펴보았을 때, 특별한 기교와 수법 없이 그저 자신의 평가와 감정을 직설적이고 소박하게 털어놓는 방식을 사용하여 분명한 가치 판단과 강렬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조화로운 결합, 거기에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의 진솔함을 더하였기 때문에, 이 작품은 감정과 메시지 전달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주제어 : 임진왜란, 의병, 진경문, 남송, 영사시

I. 머리말

본 연구는 剡湖 陳景文(1561~1642)의 장편 연작 영사시인 <詠南宋史>의 주제적·예술적 특징을 고찰하여 이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의식과 그 시적 형상화 방식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진경문은 학문과 문학에 조예가 깊은 문인이었으며,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짓밟힌 조선 국토를 되찾고 외적의 침입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자 의병활동에 적극 나섰던 인물이다. 진경문은 본관이 驪陽이고, 호는 剡湖, 자는 汝郁이며 나주 출신의 인물이다.¹⁾ 1589년에 생원시에 급제하였지만 그로부터 4년 뒤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다.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른 섬호는 여러 지방에 격문을 보내 일본군에 반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강화도에서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이후 한동안 강화·경기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장 林權(1561~1608)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曳橋城 전투(혹은 왜교성 전투라 부름)에 참전하였다. 전투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예교진병일록>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역사학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공감참봉에 봉해졌으나 출사를 거부하고 고향 나주에 은거하였다. 그 뒤로 1624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다시 나서서 군사를 모집하여 난을 평정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리고는 난이 평정되자 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후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향에서 학문 연마와 후학 교육에 정성을 다하였다.

위의 간략한 소개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은 섬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그의 삶의 궤적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권필 등 당대 이름난 문인과 두터운 친분을 쌓았고 또 정두경으로부터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던 문사이기도 하였기에, 섬호는 자신의 남다른 전쟁 경험과 감회를 문학으로 피력하였다. 현재 전하는 그의 문집 『섬호집』²⁾은 상·하 두 책으로 이루어

1) 섬호의 생애를 고찰하는 데 김경태 등의 『섬호집』 한역본 해제를 많이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진경문 저, 김경태 외 역, 『섬호집』, 국립광주박물관, 2016, 25~29면.

2) 『섬호집』의 판본 현황에 대해 김경태 외, 앞의 책, 27~28면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은 진경문, 『섬호집』, 한국역대문집총서 527, 경인문화사, 1993을 참조하였으며, 번역은 김경

졌는데, 그 중 하책은 전체가 임진왜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섬호집』은 우선 역사적 인물로서 섬호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문집은 임진왜란을 경험하고 직접 참전한 당대 인물의 생생한 기록물로서, 임진왜란과 그 직후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당시 조선 지식인의 인식을 보다 생동감 있고 깊이 있게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임진왜란 당시 섬호가 의병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그를 비롯한 당대 의병들의 활동과 의식세계를 탐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쟁과 문학이란 주제를 탐구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임진왜란의 경험을 투사하여 쓴 『섬호집』 속 시문은 섬호 개인의 차원을 넘어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섬호의 문집이나 그의 시문은 아직 학계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역사학계의 경우, 『섬호집』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예교진병일록>은 예교성 전투와 호남 의병활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³⁾ 또한 김정태·김한시 등의 노력으로 『섬호집』의 완역본이 출간 되어 관련 연구에 큰 편의와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⁴⁾ 반면에 그의 문학과 관련해서는 아직 연구논문이 작성된 바가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섬호의 시문은 사료적 가치 외에도 전란의 실상과 작자의 의식세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에 본고에서 그의 문집에 수록된 시문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그의 문집 가운데 당대 조선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南宋의 역사에 빗대어 임진왜란의 경험을 노래한 <영남송사>라는 작품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아, 작가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 그리고 역사 제재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수법 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태 외 역, 앞의 책을 참조하되 일부 수정을 가하였음을 밝혀둔다.

3) 조원래, 「정유재란과 順天 倭橋城戰鬪」, 『아시아문화』 1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213~237면; 조원래, 「정유재란과 順天倭城論 재검토」, 문화사학 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827~852면; 김동수,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호남사학회, 2007, 29~82면 등이 대표적이다.

4) 진경문 저, 김정태 외 역, 앞의 책.

II. <영남송사>의 창작 배경과 작품의 개관

『섬호집』은 섬호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뒤에 아들 陳晩貴가 아버지의 유고를 모아 목판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서문은 동명 정두경이 썼고, 발문은 정철의 아들인 정홍명이 썼다.⁵⁾ 크게 상책과 하책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상책과 하책이 각각 상·중·하 세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책의 경우, 오·칠언절구(상권), 오언율시(중권), 칠언율시(하권)가 수록되어 있으며 하책에는 雜擬(상), 詠史詩(중), 임진왜란 관련 시문 및 <예교진병일록>(하)이 실려 있다. 이러한 편찬 체제는 시체를 기본으로 하되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책에는 주로 산수를 노닐거나 일상생활을 즐기는 등 문인묵객의 아취와 풍류를 풍기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맑고 전아한 미적 풍격을 지닌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⁶⁾ 반면에 하책은 대체로 역사 인식 및 현실 대응과 관련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임진왜란 당시의 경험, 전란 직후의 난국 수습, 국가 재건에 대한 개인적 사색 등이다.

하책에 실린 작품들은 대부분 임진왜란의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역자 제재 작품인데, 표현수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임진왜란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임진왜란 당시의 경험과 감회, 전후 국가 재건에 관한 생각 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전란에 대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과거의 역사인물이나 역사사건 등에 빗대어 임진왜란과 그 직후의 조선 현실을 말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남송사>는 바로 비유적 작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무오년(1618년)에 은거하여 무료하게 지내는 중에 우연히 南宋史를 읽게 되었다. 용렬하고 혼암한 군주들이 간악한 권신들에게 제어되어 스스로 멸망의 재앙을 재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忠臣·名將·烈士·義人들이 뜻을 품은 채 쓰러지며 국가의 위기를 구원하지 못하여, 결국 중원이 백여 년간이나

5) 정두경과 정홍명의 글에서 모두 섬호 시의 칭아한 미감을 지적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 IV장 2절에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6) 물론 생책에 임란 관련 작품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從軍行>과 같은 작품을 보이기도 하다.

저 오락케 원수의 손에 떨어져 있게 한 것이 안타까웠다. 지금이야 그 때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없지만, 당시의 남겨진 흔적은 아직도 눈앞에 완연하다. 두 번 세 번을 펼쳐 읽으며 무릎을 치면서 눈물을 떨구기도 했고, 분노에 욕이 나와 쇠도끼를 휘두르고 싶을 만큼 강개하기도 하였다. 격동된 느낌을 약간 편의 詠史詩로 써서 작품들 속에 넣어 두어, 얼핏 나의 슬픈 마음을 내비추고자 한다.⁷⁾

위 인용문 <영남송사>의 서문이다. 보다시피, 이 작품은 작자가 南宋史를 읽고 나서 격한 감정이 일어나 그 심정을 표현하고자 쓴 것이다. 그러면 남송의 역사는 왜 섬호의 감정을 촉발시켰던 것인가?

학자 폴 A. 코언은 역사를 바라보고 서술하는 세 가지의 ‘키(key)’—즉 각도와 수단—를 제시하였다. 곧 ‘사건(Event)’으로서의 역사, ‘경험(Experience)’으로서의 역사, ‘신화(Myth)’으로서의 역사이다.⁸⁾ 사건으로의 역사는 역사학자가 쓴 객관성과 진실성을 지향한 연구물이며, 경험으로서의 역사는 역사 사건 당사자의 기억과 인지를 가리킨다. 신화로서의 역사는 홍보나 정치 또는 기타 목적에 의해 형성된 역사 해석과 고정관념을 말한다. 저자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입증한 것처럼 이 세 가지의 ‘키’를 통해 본 역사는 매우 상이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서의 역사 서사를 놓고 보면, 대부분이 ‘신화로서의 역사’ 성격이 강하다. 격한 감정의 표출을 목적으로 창작된 <영남송사> 또한 예외가 아니다.

송나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체로 극과 극의 대립된 양상을 보여준다. 문화·사회·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높은 문명을 이룩하고 번영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이민족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보여준 무력하고 굴욕적인 역사 때문에 중국 역대 왕조 중 가장 미약했다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송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민족의 침입으로 세워지고 또 이민족의 침입에 멸망하게 된 남송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다. 남송이나 조선 모두

7)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386면, “余於戊午年屏居無聊, 偶讀南宋史, 惜其庸君暗主受制權奸, 自促滅亡之禍, 使忠臣·名將·節士·義人齋志就敗, 不得扶顛柱危, 以致中原陷於讎虜百有餘載. 今則其人已死, 當時遺迹宛然目中, 披讀再三, 或擊節而殞涕焉, 或奮罵而鐵鉞之慷慨, 感厲作詠詩若干篇, 書于集中, 且以洩吾悲也.”

8) 柯文 지, 杜繼東 역, 『歷史三調: 作爲事件、經歷和神化的歷史』,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5.

문명국이었던 나라가 오랑캐로 여겨 멸시해 왔던 이민족에 의해 쓰라린 굴욕을 당한 참담한 역사를 지녔기에 동병상련의 감정이 일었던 것이다.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전개된 조선 후기 문학에서 송, 특히 남송에 대해 ‘미개국에 의해 짓밟힌 문명국’이란 ‘신화로서의 역사’적 관점이 전보다 유행되고, 부단히 강화되어 갔다. 예를 들어 남송의 역사적 인물인 文天祥에 대한 문인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시기에 일개문인으로 보거나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조선후기에 문천상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그가 오랑캐인 원나라에 항거한 사실에 초점을 맞춰 화이론적 측면에서 찬양을 하였다.⁹⁾

섬호가 남송의 역사에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이를 창작 제재로 택한 것 또한 ‘미개국에 의해 짓밟힌 문명국’이라는 남송의 ‘신화적 역사’의 중복과 재구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투영하고 패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표방하고자 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임란의 역사를 쓴 <聞京城賊乞和>라는 작품에서 섬호는 “송나라의 전철을 경계해야 한다(前轍須懲末)”¹⁰⁾라고 함으로써, 西夏와 金 등 이민족 정권과 강화를 했다가 결국에 위험을 초래한 것을 거울로 삼아 일본군과 강화를 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이는 곧 비슷한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던 송나라에서 대응책을 찾자는 것이다. <영남송사>의 창작 배경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섬호는 어떻게 이러한 남송의 신화를 채택, 편집, 재해석했을까? 우선 작가는 장편의 연작시 형식을 택했다. 이 작품은 총 69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칠언절구이다. 내용으로 볼 때, 역사적 인물에 대한 형상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남송 고종이 금나라와 화의하게 된 제 18수 <高宗和義>를 제외한 모든 작품들은 역사적 인물을 다루고 있으며 소제목 역시 ‘高宗’·‘李綱’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상 인물을 밝히고 있다. 그 인물은 남송의 첫 번째 황제인 고종에서부터 의병을 일으켜 항거했다가 원나라에 잡혀가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내 죽음으로 충성을 다한 애국시인 謝枋得 등 섬호가 비판하거나 칭송하고 싶은 남송시기 주요 역사적 인물들이다. 시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79인으로 그 인물을 살펴보면, 대개 서문에서 언급한 ‘군주’, ‘간신’, 그리고 ‘忠臣’, ‘明將’, ‘烈士·義人’으로 나눌 수 있다. 표로

9) 전연, 「朝鮮文人の 文天祥 認識과 〈集杜詩〉受容」,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1 참조.

10)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13면.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영남송사〉의 대상 인물

南宋	君主	高宗, 孝恭帝, 帝昺, 楊太后
	奸臣	黃潛善, 秦檜, 趙鼎, 何鑄·羅汝楫·萬俟卨, 張俊·王俊, 湯思退, 洪适, 陳賈, 韓侂胄, 史彌遠, 史嵩之, 賈似道, 呂文煥
	忠臣	李綱, 許景衡, 馬伸, 呂淵浩, 向子諲, 洪皓, 辛次膺, 張浚, 胡銓, 趙汝愚, 江萬里, 趙時賞, 陸秀夫, 張世傑, 文天祥, 謝枋得
	名將	宗澤, 楊邦乂, 岳飛, 楊再興, 韓世忠, 劉錡, 吳玠·吳玠, 李顯忠, 汪立信, 陳文龍
	烈士·義人	李彥仙, 劉元升, 劉勉之, 劉子翬, 張順, 張貴, 趙昂發, 張漢英·范天順·牛富, 姚晝·陳昭·王安節, 李芾, 尹穀, 沈忠, 徐應鑣, 司馬夢求, 徐經孫·陳著·陳茂濂, 李廷之·姜才, 張日中
金·元		金主亮, 粘沒喝, 金世宗, 金哀宗, 忽剌虎, 陳和尚, 張天綱, 許衡

위 분류표에서 ‘군주’의 경우, 楊太后는 황제가 아니지만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군주’로 분류하였다. ‘충신’의 경우, 충직한 신하를 가리키되 주로 명재상이나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신하를 분류한 것이다. ‘명장’의 경우, 말 그대로 비교적 유명한 장수에 대한 분류이다. ‘열사·의인’의 경우, 주로 오랑캐와의 대항에서 극단적인 수단까지 불사하여 절개를 지킨 일반인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에는 낮은 관직을 지냈으나 관직보다는 작품에서 주로 인물의 ‘열’이나 ‘의’를 부각한 경우가 있으며, 또는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유명한 장수가 아니며 시에서 주로 해당인물이 전쟁에서 ‘의’와 ‘열’을 보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도학자들 역시 ‘열사·의인’에 포함시켰다. 또한 실제로 ‘간신’, ‘충신’, ‘명장’, ‘열사’, ‘의인’을 포함한 신하와 백성에 대한 포폄의 기준은 ‘군주’에 대한 것과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시 ‘臣民’으로 묶었다. 이와 동시에, 남송의 적이자 오랑캐로 여긴 이민족 인물에 대한 포폄의 기준이 또 남송 인물에 대한 것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원’을 따로 분류하였다. 아래에 먼저 윗표에서의 분류대로 형상화한 인물에 따라 본 작품의 구체 내용과 주제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詠南宋史〉의 주제적 특징

1. 군주 덕목에 대한 希求와 時運에 대한 哀歎

앞서 인용한 <영남송사>의 서문에서 “용렬하고 혼암한 군주들[庸君暗主]이 간악한 권신들에게 제어되어 스스로 멸망의 재앙을 재촉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자는 남송의 군주들을 ‘庸君暗主’로 규정하면서 망국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주장하였다. 서문에 보이는 이러한 태도와 입장은 작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송의 첫 번째 황제인 고종에 대한 비판은 매우 맹렬하다.

가) 중원 장병들의 기대를 앞아서 잃어버리고
변신을 칭하며 스스로 작은 주황이 되었네.
왕륜은 제 스스로 장통고를 불러들였고
진회는 몰래 악왕 모살을 준비했구나.
坐失中原將士望
稱藩自備小郝黃
王倫自致張通古
秦檜潛圖殺鄂王¹¹⁾

나) 신하와 속국되길 칭하여 금나라 군대에 알리고
금왕의 조약서 늦게 올까봐 외려 걱정하는구나.
회수의 한 귀퉁이만이 송나라의 땅이거늘
선대 능침은 누구에게 맡길지 모르겠구나.
稱名稱邑報金師
還恐金王誓詔遲
淮水一邊唯宋土
知陵寢付阿誰¹²⁾

11)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387면.

12)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392면.

가)는 <영남송사>의 제1수 <高宗>, 나)는 제18수 <高宗和議>로, 모두 고종을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금과 화의를 맺는 데 있다. 가)는 1·2구에서 ‘坐失’과 ‘自備’ 두 시어를 통해 고종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오랑캐인 금과 화의를 맺어 신하라 자칭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못마땅함과 풍자를 분명히 드러냈다. 3·4구는 고종 때 주화파의 대표인물인 왕륜과 진회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중용한 고종에 대한 은근한 비판을 계속하였다. 나)에 이르러서는 풍자와 비판의 강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남송사>는 기본적으로 인물에 대한 형상화이며, 사건은 오로지 <고종화의> 하나만을 다루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섬호가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시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역사 사건을 지칭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고종11년(1142) 금과 송이 맺은 이 화의를 ‘고종화의’라 칭한 것도 고종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을 보면, 제2구에서 고종이 금나라의 조서가 늦게 올까봐 근심한다고 말함으로써 예술적 허구를 통한 적나라한 풍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구와 4구에서 淮水 남쪽의 작은 지역만 차지하고 있는 처지에서 북쪽에 있는 북송 황제들의 능은 과연 누가 돌볼 것인가라는 반문을 통해 남송의 굴욕적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이처럼 섬호는 군주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중원의 주인이던 송이 오랑캐에 의해 굴욕을 당하게 된 데에는 고종을 비롯한 송의 황제들이 군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가 고종이 군주로서의 역할을 잘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두 가지에 있다. 하나는 중화의 대표로 문명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태도와 자세의 부재이다. 즉 끝까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오랑캐와 화의를 맺고 싶어 하는 태도와 자세이다. 다른 하나는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간신을 등용한 것이다. 이 같은 포폄의 기준은 다른 황제에 대한 평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제33수 <陳賈>에서 “일시에 천하의 선비를 구덩이에 몰아넣으니, 효종 같은 현명한 군주도 알아보지 못했구나[陷盡一時天下士, 孝宗賢主不曾知]”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효종을 ‘賢主’라 칭한 것은 효종이 북벌을 단행한 까닭으로 보이고, 도학을 공격한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탄식한 것은 군주로서 識人·用人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다. 이 두 가지 덕목의 부재로서 남송의 군주들을 비판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섬호가 생각하는 군주로서 갖춰야 하는 덕목임을 알 수 있다. 즉 중화문명을 지킬 책임감과 뛰어난 用人術은 군주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섬호는 나라의 흥망이 인간의 힘으로 좌우할 수 없는 天命, 時運과도 관계된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그는 군주들의 신세에 대한 탄식을 통해 나라의 운명을 탄식하기도 하였다.

땅 끝의 남쪽 바닷가에 형세는 이미 기울었고
조각배에 몸 실어 작은 조정 떠 다녔네.
외로운 신하 등 뒤에 황포자락 펄럭이더니
아스라한 한 점 애산에 바닷물은 푸르렀네.
地盡南維勢已傾
扁舟自寄小朝廷
黃袍翻却孤臣背
一點厓山海色青¹³⁾

위의 시는 남송의 마지막 황제인 趙昀의 최후를 슬퍼하며 쓴 것이다. 1279년 남송은 元과의 마지막 전쟁인 崖山戰鬪에서 패배해 포위를 당하자 左丞相 陸秀夫가 조병을 안고 바다에 투신하였다. 이 작품은 바로 그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영남송사>에서 형상화하는 역사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포폄과 태도가 매우 분명하고 작품을 통해 드러난 감정 역시 격하고 강렬하다. 하지만 이 작품은 강한 칭송이나 비판 대신에 그저 동정, 애상과 슬픔어린 탄식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 작품으로 <孝恭帝>¹⁴⁾, <楊太后>¹⁵⁾ 등이 있다. 효공제는 남송의 7대 황제로 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고, 2년 후 元軍이 수도 臨安에 들어오자 대리청정한 태황태후 사씨가 그를 안고 투항하였다. 원나라에 투항한 후 원세조의 우대를 받아 티벳에서 승려가 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알고 난 후 쓴 自憐의 시 때문에 사사되고 말았다. 양태후는 조병의 이복형인 단종의 생모이다. 조병이 바다에 투신한 소식을 듣고 그 또한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이처럼 작자는 남송의 마지막을 지켜 본 군주들에 대해 나라의 멸망에 대한 시비공과를 따지는 대신에, 그 마지막을 함께 한 비참한 역사를 상기하며 天命 앞에서의 개인의 무력함과 기울어

13)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05면.

14)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02면.

15)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06면.

진 時運으로 인한 애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리하자면, <영남송사>에서 군주에 대한 형상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종과 같이 무력한 군주로 중원의 주인임에도 문명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결심이나 인재를 등용하려는 노력이 없음에 대해 비판과 풍자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조병과 양태후처럼 남송의 마지막을 함께 한 비운의 군주인데, 그들의 비극적 최후를 통해 나라 운명과 시국에 대한 비탄의 감정을 드러냈다. 이 두 가지의 君主象을 통해 문명국이 굴욕을 당한 시국에 대한 애통과 현명한 군주에 대한 시인의 갈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는 임진왜란의 경험과 당시 조선의 현실에 대한 애통함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임진왜란을 겪은 심회를 표출하고 있는 <고시> 제8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먼 옛날 주나라 왕도가 성하던 때는, 아침 산 동쪽에 봉황새 와 울었다네. 어찌하여 천년 흐른 이 시대에는, 문왕 같은 성군 나오지 않는가. 폐지는 까마귀 온 천지에 가득하고, 예수는 하염없이 넘실넘실 흘러가네.[伊昔周道盛, 此禽鳴朝陽. 如何千載下, 斯世無文王. 羣鴉滿天地, 澧水空洋洋]”¹⁶⁾ 이 작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왕과 같은 賢主의 부재와 道의 不振을 탄식한 내용으로, <영남송사>에서 군주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때문에, 남송 황제에 대한 형상화에서 읽혀지는 섬호의 감정과 인식은 임진왜란을 겪은 후의 조선의 현실에 대한 감회와 사색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2. 忠과 義에 대한 칭송과 강조

금과 원 두 이민족의 침입과 굴욕의 문제가 <영남송사>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군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군주뿐만 아니라, 신하와 백성의 경우, 또한 인물 선택부터 그들에 대한 평가까지 이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우선 인물 선택부터 살펴보자. <표 1>의 분류에 따라 신하와 백성은 奸臣, 충신, 명장, 열사·의인의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간신의 경우, 주화파로 여겨진 인물, 예를 들면 黃潛善, 秦檜, 何鑄·羅汝楫·萬俟卨, 張俊·王俊, 湯思退, 洪适,

16)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353면.

呂文煥 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충신의 경우, 주로 주전파나 소수민족 정권과의 전쟁을 이끌었거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명장의 경우 더 말할 것 없이 모두 금이나 원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烈士·義人の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죽음으로 충성을 다했거나 남다른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오랑캐와의 관계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품격과 절개가 섬호가 가장 중요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어의 사용을 통해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남 송사>는 총 69수인데, 그 시 가운데 1/3 가량이 ‘충’, ‘의’, ‘절’, ‘열’ 등과 같은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忠’이라는 시어를 사용한 작품은 그 수가 무려 18수나 된다. 이 외에 ‘義’, ‘節’, ‘熱’의 시어가 사용된 작품은 또한 각각 7수, 6수, 3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가) 성채 지킬 생각 단단할수록 공격도 더욱 심하네
부대는 고립되고 세력은 약해지니 어찌하면 좋은가.
가여워라 그들의 세 충신의 죽음이어
마치 번성이 함락되던 날과 같구나.
守志益堅攻益急
兵孤勢去欲何爲
可憐此日三忠死
却似樊城陷敗時¹⁷⁾

나) 일찍이 여러 대에 걸쳐 교화를 입었으니
구차히 목숨이 털가죽 옷에 의로움 더럽힐 수 없었네.
제운루 아래 있는 천 길의 우물
두 아들 딸 하나 데리고 투신하였네.
曾是累朝蒙教化
偷生義不汚氈裘
梯雲樓下千尋井
身與雙男一女投¹⁸⁾

17)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02면.

가)는 제53수 <姚闡·陳炤·王安節>로, 나라에 대한 세 사람의 충성을 기리고 있다. 그들은 1275년 남송과 원 사이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인 常州戰鬪에서 최선을 다해 항전하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상주성은 1275년 3월 즈음에 원나라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는데, 요은 등이 수차례의 반격을 통해 5월 즈음에 되찾았다. 그러자 원 측에서 援軍을 보내 다시 빼앗으려 했다. 요은·진소·왕안절과 상주 백성들의 결사 항전으로 몇 달간 버텼지만 10월 즈음에 원이 계속해서 원군을 보내 더욱 맹렬한 공격을 가하였다. 시의 제1구에서 성을 지킬 마음이 단단할수록 공격이 커진다고 말한 것은 이를 가리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은 등이 송 조정에 원군을 요청하였지만 지원군은 도중에 원나라 군대에 의해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자 상주성이 완전히 고립되어 요은·진소·왕안절 등이 싸우다 죽었다. 제2구에서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이어지는 제3구에서 그들을 ‘三忠’이라 칭하며 안타까움과 기리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나)는 제57수 <徐應鑣>로, 태학생 서응표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고 있다. 1276년 원이 임안을 함락시켜 황제 宋恭帝를 비롯해 태학생 백 여 명이 함께 원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데 서응표는 원으로 끌려가길 원치 않아 자녀와 같이 자결하기로 한다. 그는 태학 안에 있는 악비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낸 후 아들 둘과 딸 한 명을 데리고 제운루에 올라가 불을 질렀다. 잠들지 않았던 노복 한 명이 이를 발견하여 그들을 구했지만 결국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악비 사당 앞에 있는 우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서응표의 행동에 대해 섬호는 ‘義’라고 하며 높이 평가하였다.

이 두 작품에서 보인 것처럼 <영남송사>에서 ‘충’, ‘의’, ‘절’, ‘열’을 사용한 작품은 대다수가 묘사 대상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절개를 칭찬하고 있다. 위 작품 외에, “진희에게 죽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절개와 충정은 명정 글귀에 저절로 드러나네(不食知爲秦檜殺, 貞忠自見寫銘旌).” “절의에 맞게 죽으려는데 그 무엇이 두려우랴, 그 날의 공초에 적은 말 그 뜻이 비장하다네(死要中節寧須畏, 當日供辭意可悲).”와 같은 작품들은 모두 ‘충’, ‘의’와 같은 시어로 해당 묘사 대상의 절개를 칭송하고 있다.

한편, ‘충’, ‘의’와 같은 시어를 썼지만, 작품의 묘사 대상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30수 <洪适>에서 “해를 꿰는 부친의 충정에 부끄러운

18)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03면.

아들이 되었을꼬(可愧先公貫日忠)”¹⁹⁾라고 하였다. 이 편은 홍괄에 대한 것인데, ‘충’자는 홍괄의 부친인 홍호에 대한 평가이다. 그렇지만 이는 부친처럼 ‘충’을 다하지 못한 홍괄에 대한 비판으로, 역시 ‘충’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작품에서 다루는 대상에 대한 평가가 아니더라도, ‘충’·‘의’·‘절’·‘열’ 등의 시어를 사용한 <영남송사>의 상당한 양의 작품은 해당 품격과 기개를 지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시어를 사용하지 않은 작품들 중에도 충·의를 칭송한 경우가 상당하다.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사시성 머리에 칼과 창으로 둔을 치고
미관의 외로운 신하 보국현신의 촌심 품었네.
가엾어라 백번의 전투 끝에 스스로 죽었네
당초의 훌륭한 조상 있어 그런 손자 나왔구나.
沙市城頭劍戟屯
孤臣許國寸心存
可憐百戰身還死
是祖當年有是孫²⁰⁾

나) 천지 개벽 이전에 이런 사람 있는 적 없고
이 세상 이후로 또 이런 사람 있을 수 없네.
그 몸은 죽어도 이름은 사라지지 않으리니
그 날의 기약은 어찌 감히 그를 해쳤나.
開闢以前曾有之
乾坤此後定無之
其身可死名難死
當日奇溫敢殺之²¹⁾

위의 두 수의 작품은 각각 제58수 <司馬夢求>와 제68수 <文天祥>이다. 사마몽구는 송나라의 명재상 司馬光의 후예로, 元에 저항하다 자결한 인물이다. 문천상은

19)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395면.

20)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04면.

21)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07면.

송나라 말기의 抗元抗爭을 이끌었던 정치가이자 명장수로, 원에 저항하다 잡혔으나 끝까지 굽히지 않아 끝내 원에 의해 죽게 되었다. 그는 오늘날까지 愛國忠臣의 대표인물로 뽑힌다. 보다시피, 위의 작품들에서 섬호는 ‘충’·‘의’·‘절’·‘열’ 등과 같은 시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의 충성과 의로움을 칭송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요컨대 <영남송사>의 핵심은 오랑캐 문제이므로, 이 문제와 직결되는 ‘충’·‘의’ 정신은 섬호가 吟詠 대상을 선택하고 재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그가 칭찬하고提防하고자 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3. 화이관적 세계관의 견지

이 장에서는 오랑캐로 여겨진 금과 원 인물에 대한 섬호의 인식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지만, 오랑캐 문제는 <영남송사>의 핵심적 소재이자 주제의식이다. 금나라 출신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오랑캐에 대한 섬호의 인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앞의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69수의 작품에서 금나라 출신의 인물 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포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 이민족 인물에 대한 태도

인물	신분	태도	인물	신분	태도	인물	신분	태도
金主亮	군주	부정	金哀宗	군주	부정	張天綱	충신	긍정
粘沒喝	명장	부정	忽斜虎	충신	긍정	許衡	학자	부정
金世宗	군주	긍정	陳和尚	명장	긍정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작자는 금나라 인물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한 것은 아니었다. 금세종이나, 홀사호, 진화상, 장천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가) 맑은 정치와 밝은 교화로 남북 안식시켰으니
황하 이북의 작은 요순이라 칭송하네.
비로소 알았구나 이적의 땅에도 임금이 있음을
공자도 탄식했네 화하의 땅에는 없다고.

致治文明南北息
號稱河朔小唐虞
始知夷狄有君長
魯聖亦嘆諸夏無²²⁾

나) 의에 맞게 죽으려는데 그 무엇이 두려우랴
그 날의 공초에 적은 말 그 뜻이 비정하다.
마침내 끝난 곳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늠름한 정절의 바람 오늘까지 불어오네.
死要中節寧須畏
當日供辭意可悲
畢竟所終人不識
貞風凜凜至今吹²³⁾

가)는 제35수 <金世宗>이다. 금세종은 금의 제5대 임금으로, 즉위 당시 금나라의 어수선했던 정국을 수습하고 내치에 정성을 쏟으며 송에 대한 침략을 중지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그래서 흔히 그가 다스린 기간을 금나라의 황금시대라 여기고, 그를 ‘小堯舜’이라 칭하곤 하였다. 위의 작품에서 섬호 또한 그의 治績을 인정하여 어진 군주로 높이 평가하였다. 나)는 제42수 <張天綱>이다. 장천강은 金哀宗 때의 신하이다. 금애종을 모시고 蔡州에 이르렀다가 채주가 함락되어 송나라 장수에게 잡혀 갔다. 잡힌 채로 송의 수도인 임안에 호전되자, “대장부는 그저 절의에 맞게 죽지 못할까 걱정할 뿐이지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송나라 관리가 그에게 공초에 애종을 ‘虜主’라 쓰라고 명하자 그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며 끝내 굽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게 된 송나라 관리는 부득이 그가 말한 대로 ‘舊主’라 썼다. 그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정사에서도 그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나)에서는 장천강의 이와 같은 행위를 묘사하고 그가 보여준 충정과 절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 두 작품 외에, 제38수와 제39수에서 각각 국난을 맞아 죽음으로 충의를 지킨 금나라의 충신 홀사호와 진화상의 절개를

22)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397면.

23)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399면.

탄복하며 찬양의 뜻을 표하였다.

이처럼 비록 금나라 출신이지만 금세종을 비롯한 인물에 대해 섬호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문명국으로 여겨진 송과 똑같은 기준으로 오랑캐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물론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제39수에서 陳和尚에 대한 평가가 이 점을 확인해 준다. 진화상은 금나라 말기의 명장으로 여러 차례 元軍을 격퇴하였다. 나중에 몽골군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온갖 괴롭힘을 당해도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고 고국에 대한 충의를 지켰다. 이러한 진화상에 대해 섬호는 찬사를 보내면서 “뒀날 다시 태어날 때에는 응당 華夏의 땅에 태어날 것이다 (他日再生應夏土)”²⁴⁾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오랑캐와 중화에 대한 섬호의 차별화를 시사해 준다. 아래 몇 개의 예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비빈은 어디로 갔을까 화림에서 흐느껴 우네
되돌아 산하를 굽어보니 금나라 땅을 다 잃었구나.
천도는 돌려주기를 좋아하니 원도 참람이 아니네
고통 겪었다 하나 어찌 송의 휘증·흠종에 견주랴.
妃嬪何處泣和林
却顧山河盡失金
天道好還元不僭
艱辛孰與宋徽欽²⁵⁾

나) 원나라 호인 세상을 만나서 큰 다스림 도우니
북방 사람은 학문을 알아 오랑캐 되는 것 면했네.
당년엔 비록 천하 백성 위해 여러 방책 내었겠으나
출사하고 물러남에는 어찌 후인의 의심 없겠는가.
遭遇胡元翊太治
北人知學難免夷
當年縱爲蒼生計
出處寧無後代疑²⁶⁾

24)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398면.

25)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397면.

26)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01면.

가)는 금애중에 대한 것이다. 금애중은 1232년 12월 즈음에 약 1년 동안 元軍에 의해 포위된 汴京城에서 빠져 나와 歸德으로 달아났다. 그때 변경에 남겨둔 후궁과 왕족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 원의 수도인 和林으로 끌려갔다. 그러다가 다시 채주로 옮겨졌는데, 채주성이 함락되기 전에 종실에게 양위한 뒤 자결하였다. 위의 작품은 바로 이 역사 상황을 쓰고 있는데, 원과 송에 대해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장 제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섬호는 남송의 멸망에 대해 동정하고 비통해 하였다. 이에 비해, 가)에서 금의 멸망에 대해 매우 통쾌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금에 대한 원의 침입은 ‘참람’이 아니라 북송을 멸망시킨 것에 대한 報應이라고 하며 시원해하였다. 원에 의해 후궁들과 황족들이 적국에 의해 끌려간 굴욕 또한 금나라가 靖康의 난 때 송황제의 후궁들과 황족들을 잡아간 것에 대한 業果로 보고 있다. 중화의 대표이자 문명국이었던 송과 오랑캐로 여겨진 금에 대한 섬호의 상이한 태도에서, 화이관적 질서와 세계관에 대한 견지를 엿볼 수 있다.

나)는 금나라 말기에 태어나 원나라 초기에 활동한 학자 許衡에 대한 것이다. 허형은 성리학에 전념하여 대가를 이룬 인물로, 일생토록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원세조의 존중을 받아 여러 번 부름을 받아 국자감의 재장 등을 역임하고 또 새로운 역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을 건의한 적이 있으나, 대체로 관직에 머물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조선의 성리학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그의 사람됨을 문제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섬호가 중화주의적 입장에서 원나라에 대한 허형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 완곡하게 비판을 가하였다.

실제로 임진왜란의 경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다른 시에서도 또한 이와 같은 화이론적 세계관과 이에 기초한 질서의 흔들림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가) 어찌하여 그대는 중국의 뛰어난 장수인데도

남원성을 구원하지 못했는가.

.....

소국은 말한 것도 없으니

어찌 이렇게 천자의 위엄 손상되었나.

胡爾漢飛將

不救南原城

.....

小國不足道
奈此損天聲²⁷⁾

- 나) 동방은 예로부터 소중화라 불려왔고
예악과 의관 황제께서 아름답다 하셨다.
누가 알았으리오 요순시대 옛날 일 돼버리고
팔년 간의 시련으로 창칼이 녹이 슬 줄을.
東藩舊號小中華
禮樂衣冠帝謂嘉
誰料唐虞舊日月
八年風雨老干戈²⁸⁾

가)는 <全州空>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시의 창작 배경에 대해 시인은 “남원은 이미 함락되었는데 적은 승승장구하여 석권의 기세가 있었고, 전주를 지키던 天將 陳遊擊은 스스로 성을 비우고 도망쳤다.”라고 주석을 달아 밝히고 있다. 이 배경 설명과 함께 보면, 위에서 인용한 시구는 字小의 책임을 잘 이행하지 못한 진유격을 비판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이면에는 화이론과 책봉조공체제를 기초로 한 事大字小의 전통질서에 대한 인정과 수호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예로, “수레를 밀어주며 단봉문에서 멀리 작별하고서, 하늘에서 낸 계책을 손으로 지휘하여 동쪽 번병을 구원하러 왔네.(推穀遙辭丹鳳門, 手指天策濟東蕃)”²⁹⁾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순천 예교성 전투에서 병사 오천 명을 이끌고 구원하러 온 명나라의 오씨 장수를 칭찬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화이론적 전통질서와 세계관에 대한 긍정과 수호의 의지가 저변에 깔려 있다.

가)는 중국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화이론적 세계관과 사대자소의 전통질서에 대한 견지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나)에서는 이러한 전통질서에서의 조선의 정체와 위상에 대해 말했다. 보다시피, 시인은 조선을 ‘소중화’라 자칭하며 문명국으로서의 자긍

27)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26~427면.

28)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43면.

29)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42면.

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이러한 질서가 흔들리게 된 사실을 애통해 하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비슷한 의식과 감정을 드러낸 구절은 『섬호집』에서 다수 발견된다. 예를 들면, <二湖屠>에서 당당한 문물의 우리 조선 땅에, 예의가 성대한 선비들.(堂堂文物鄉, 濟濟衣冠士)³⁰⁾라고 하였다.

위에서 살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영남송사>에서 금나라와 원나라 사람에 대한 포편을 고찰한 결과, 부정적으로만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오랑캐인가 중화인가’가 중요한 잣대로 적용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는 그의 화이론적 세계관에 의한 자연스러운 표출이라고 하겠다.

IV. 〈詠南宋史〉의 예술적 특징

연작시의 형태를 가지는 작품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 즉 여러 개별 작품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통일을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측면과 작품 하나하나의 소재나 주제를 고려한 개별적 측면에서 동시에 고찰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 이 두 가지 측면에 입각하여 <영남송사>의 형식적·기법적 특징 및 그 예술적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장편 연작시 형식의 사용 및 그 효과

<영남송사>는 장편의 연작시 형식을 사용하였다. 연작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편의 작품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연작시를 이루는 개별 작품들이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같거나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영사 연작시의 창작은 魏晉 시인 左思의 <詠史八首>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몇 십 수 내지 몇 백 수에 달하는 대장편 연작 영사시의 창작은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³¹⁾ 한국의 경우,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開元天寶詠史詩>가 43수로

30)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36면.

31) 중국 영사시 및 장편(중국에서 보통 대형이라 부름) 연작 영사시의 발생, 발전과 특징에 대해,

최초의 장편 연작 영사시로 볼 수 있으며 조선후기에 이르러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특히, 조선후기에 창작된 해동악부 계열 작품들은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69수에 달하는 섬호의 <영남송사>는 이와 같은 한국의 장편 연작시의 발전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다.

장편의 연작 영사시는 내용상 특정 주제나 대상을 다룬 경우, 특정 지리 공간을 읊은 경우, 역사인물이나 역사사건을 다룬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역사인물이나 역사사건을 吟詠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영남송사> 역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작시라면 개별 작품 상호 간, 그리고 개별 작품과 작품 전체 간에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기 마련이다. 다만 그 관계의 긴밀성은 작품에 따라 다르다. <영남송사>의 경우, 비교적 치밀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어, 개별 작품 간의 관련성이든 개별 작품과 작품 전체의 관련성이든 모두 비교적 긴밀한 편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오랑캐 문제 대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남송의 역사를 형상화하였다. 吟詠 대상의 선택부터 해당 대상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전체를 이루는 69편의 개별 작품은 모두 이 공동된 문제의식에 묶여져 있다. 이것은 작품의 통합성과 질서감을 확보하고 각 개별 작품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여 정밀한 구조를 갖추게 한 원동력이라 하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밀한 구조를 갖추게 한 구체적 수법을 묻는다면, 우선 종적으로 볼 때 시간의 축이 존재한다. 이 작품은 남송 건국 당시부터 남송 멸망 때까지 시간 순에 따라 역사 인물을 선택하여 형상화하였는데, 이로써 구성의 질서성과 작품의 완결성을 높였다. 또한 횡적으로 볼 때, 형상화 대상의 폭이 매우 넓다. 앞에서 살핀 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다룬 인물은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신분과 계층 등으로 볼 때 매우 다양하다. 무명의 일반인부터 제왕까지, 한족 출신의 인물부터 이민족 출신의 인물까지, 간사하고 악독한 사람부터 충의를 지니고 용맹한 인물에 이르기까지, 작품은 다양한 인물상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사회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개별 작품 간의 상호 관련성과 의존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설득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趙秦望·張煥玲 著, 『古代詠史詩通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張曉麗 著, 『宋代詠史詩研究』,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처럼 분명한 포커스의 존재, 종적 축과 횡적 폭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별 작품이 조직적·유기적으로 묶여 정밀한 구조를 갖춘 하나의 결합체를 형성하였다. 달리 말해서, 이러한 형식의 사용은 작품의 완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제를 강화하고 감정의 濃度와 작품의 호소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섬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남송 역사를 포괄하는 기준과 남송의 멸망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읊어 의론의 설득력과 서정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독자들에게 자신의 주장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2. 直抒胸臆적 수법의 사용 및 그 효과

섬호의 시에 대해 鄭斗卿은 “격률이 淸婉하여 白光勳과 같다”³²⁾라고 평하였고, 鄭弘溟은 “공의 유고를 얻어 시를 음미하고 영탄하니 그 맑은 기풍과 고일한 운치가 풍진 세상을 초탈하여, 참으로 있기 드문 보물이고 다리 없는 진주라 하겠다.”³³⁾라고 평하였다. 모두 맑고 운치가 있으며 탈속적이라는 특징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섬호 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일례로 그의 <山下謠>라는 작품에 “수풀 끝엔 깃든 새가 잠들고, 하늘간엔 새로 뜬 달 높구나. 아스라한 다리에 스님 홀로 가는데, 구름 속 절에서 저녁 종소리 멀도다.(林際棲禽定, 天邊新月高. 危橋僧獨去, 雲寺暮鐘遙.)”³⁴⁾라는 구절은 격률이 淸婉하다는 정두경의 시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섬호집』 상책에 실린 작품들은 대부분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하책에 실린 작품들은 매우 다르다. 하책에 실린 작품들은 거의 모두 임진왜란에 관련된 것으로 제재의 특정상 청아한 풍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영남 송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래에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몸에 열 번 창 찔려 마침내 장렬히 전사하니
일편단심의 순국을 누가 이와 견줄까

32)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214면. “格律淸婉, 白玉峯流亞哉”

33)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216면. “得公遺稿, 咀嚼詠嘆, 其淸風逸韻, 超脫塵白, 眞所謂稀有之寶.”

34)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220면.

가여워라 한 조각 빈 구덩이 흙 속에
외로운 충정 만고의 슬픔 길이길이 서려 있네.
身被十創終烈忠
一心殉國孰如斯
可憐一片空坑土
長帶孤忠萬古悲³⁵⁾

위의 시는 제62수 <張日中>이다. 장일중은 원에 항거하다가 전사한 송말의 장수이다. 1277년에 송말의 抗元鬪爭을 이끈 우승상 文天祥이 원나라 군에 의해 空坑으로 쫓겨 고립되었을 때, 그를 구원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갔다. 용감하게 싸웠으나 창에 몸을 열 번 찔려 전사하고 말았다. 장일중의 장렬한 순국에 감동되어 쓴 작품으로, 이 시에서 그의 비극적 최후를 기리며 그의 충렬 정신에 찬사를 보냈다. 이 시는 雕琢에 공을 들이지 않고 거의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인의 분명한 가치 판단과 강렬한 감정이 독자에게 잘 전달되어 감동을 느끼게 하였다. 실제로 이는 <영남송사>를 이루는 개별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아래 이 작품을 중심으로 예술적 기법의 측면에서 <영남송사>를 이루는 개별 작품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우선, 시어의 사용부터 살펴보자. 첫째로, 가치 판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남송사>에서 ‘충’·‘열’·‘의’·‘절’ 등과 같이 시인의 가치 판단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위의 작품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시를 시작하자마자 ‘烈忠’이라 평하였다. 이러한 시어들의 사용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해당 역사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해당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둘째로 감정을 직접 표출하는 시어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이 연작시에서 다루는 인물이 대부분 비극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비통해하거나 탄식하는 등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위 작품의 제4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悲’는 시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어 중 하나이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哀’,

35) 진경문, 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1993, 405면.

‘冤’, ‘哭’ ‘淚’ 등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두보가 제갈량을 기리며 쓴 “길이 후세 영웅들로 하여금 옷깃에 눈물 가득 흘리게 하네.[長使英雄淚滿襟]”이란 시구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제3구에 등장하는 ‘可憐’이란 시어 역시 자주 사용하였다. 필자의 통계에 따르면, 이 시어는 10번 이상을 사용하였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只惜’, ‘可唾’, ‘可惜’ 등도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시어들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해당 역사 인물의 행동으로부터 촉발된 슬픔과 탄식을 보가 절실하게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구법의 사용을 살펴보자. <영남송사>는 복잡한 구법의 사용을 자세하고 平鋪直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칠언시는 ‘言靈變’이란 평가를 받는 바, 오언보다 단 두 글자가 많아진 것 같지만 이 두 글자로 인해 리듬·시어·구법 상의 풍부한 변화가 가능해 졌다. 예를 들면 두보가 “앵무가 남겨진 향도 싸라기를 쪼고, 봉황이 늙은 오동 가지에 깃든다네.(香稻啄餘鸚鵡粒, 碧梧棲老鳳凰枝)”라고 하는 구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보다시피 위의 작품에서 전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거의 산문에 가까운 구법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장편 연작시에서 한 수 한 수에 공을 들여 정성스럽게 조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메시지와 감정 전달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래도 기교를 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문형의 사용이라고 하겠다. 제2구에서 “순국의 일편단심 누가 이와 견줄까”고 하여 장일중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장렬한 죽음으로 나라에 충성을 다한 시적 주인공을 극도로 칭찬하였다. 이는 의문을 통해 긍정을 나타내는 동시에, 감정 표현의 강도와 생동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실제로 의문형, 특히 反問은 여러 편에서 사용되었다. 즉, 섬호는 <영남송사>에서 메시지와 감정의 효율적 전달을 중점에 두고 기교를 자제하여 平鋪直敘식의 서술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감정 표현의 강도와 생동감을 높이기 위해서 의문형을 사용하였다.

요약하자면, <영남송사>를 이루는 각 편은 특별한 기교와 수법 없이 그저 자신의 평가와 감정을 직설적으로 소박하게 털어놓고 있다. 즉 직설과 소박은 이 작품의 가장 큰 표현 전략이다. 이러한 수법은 장편 연작시의 형식에 어울리는 수법이며, 작품과 수법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이 작품이 지닌 분명한 가치 판단과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남송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은 같은 처지를 경험한 시인의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에 더욱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수법에 따른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한다. 한 수 한 수의 독립된 작품으로 볼 때, <영남송사>를 이루는 각 편은 예술성과 여운미가 부족하다.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의 교묘한 결합을 통해 문학적 진실성과 감화력을 확보하여 오래 되새길 수 있는 여운을 남기는 것 또한 역사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섬호의 <영남송사>는 기교의 활용, 形象의 提煉, 여운의 조성 등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섬호의 <영남송사>는 송나라가 ‘미개국에 의해 짓밟힌 문명국’이라는 ‘신화’의 문학적 재구이며, 의병활동이라는 남다른 경험을 가진 작자가 임진왜란의 상처를 투영하고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표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본 작품의 내용과 주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영남송사>는 총 69구로 구성되며 모두 칠언절구이다. 역사 인물에 대한 형상화가 중심이 되는 바, 79명의 역사인물과 ‘고종화의’란 역사 사건을 다루었다. 그리고 작품에서 다룬 인물들은 대략 남송의 군주, 남송의 臣·民, 이민족 金·원 출신의 인물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세 부류의 인물에 대한 형상화를 살핀 결과, 우선 ‘오랑캐 문제에 대한 대응’이란 주제 의식이 존재한다. 남송의 군주와 관련해서는 고종과 같이 중원의 주인임에도 문명국의 자존심을 버리고 인재를 등용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군주를 풍자·비판함과 동시에 조병이나 양태후 등 남송의 멸망을 함께한 비운의 군주에 대한 애절한 시선을 견지하여 이 군주에 대한 두 가지 형상화를 통해 문명국이 오랑캐에 의해 굴욕을 당한 시국에 대한 애통과 현명한 군주에 대한 작자의 갈망을 표출하였다. 남송의 대신과 백성에 대한 형상화를 살펴본 결과, ‘충’·‘의’ 정신은 섬호가 吟詠 대상을 선택하고 재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그가 칭찬하고 提唱하고자 하는 덕목임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나라와 원나라 인물에 대한 섬호의 인식을 고찰한 결과, 부정적으로만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오랑캐인가 중화인가’가 중요한 잣대

로 적용되었음은 분명하며, 이는 그의 화이론적 세계관에 의한 자연스러운 표출임을 밝혔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역사 인물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드러낸 생각과 감정이, 임진왜란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쓴 작품에서 똑같이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작자의 사유를 비유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본 작품의 예술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본문에서 두 가지의 측면, 즉 여러 개별 작품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통일을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측면과 작품 하나하나의 소재나 주제를 고려한 개별적 측면에서 <영남송사>의 예술적 수법을 분석하였다. 우선, <영남송사>는 비교적 치밀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분명한 포커스(주제의식)의 존재, 종적 축과 횡적 폭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별 작품이 조직적·유기적으로 묶이어 정밀한 구조를 갖춘 하나의 결합체를 형성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제를 강화하고 감정의 농도와 작품의 호소력을 높였다. 다음으로, <영남송사>를 이루는 개별 작품을 한 편 한 편 살펴보았을 때, 기교를 자제하였다. 자신의 분명한 가치 판단과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에 직접과 직설의 표현 전략을 선택하였는데, 시어의 사용으로 볼 때, 가치 판단과 감정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시어들을 많이 사용하였고, 구법으로 볼 때, 구법상의 변화나 기타 일체 기교를 자제하고 메시지 전달에 효율적인 平鋪直敘의 구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장편 연작시란 형식에 잘 맞는 수법이고, 둘의 조화로운 결합, 거기에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의 진솔함을 더하였기 때문에, 이 작품은 감정과 메시지 전달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참고문헌

- 진경문, 『섬호집』, 경인문화사, 1993
- 진경문 저, 김경태 외 역, 『섬호집』, 국립광주박물관, 2016
- 柯文 저, 杜繼東 역, 『歷史三調: 作爲事件、經歷和神化的歷史』,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5
- 張曉麗 저, 『宋代詠史詩研究』,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9
- 趙秦望·張煥玲 저, 『古代詠史詩通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 김동수,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호남사학회, 2007
- 조원래, 「정유재란과 順天 倭橋城戰鬪」, 『아시아문화』 1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 조원래, 「정유재란과 順天倭城論 재검토」, 문화사학 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 전연, 「조선문인의 문천상 인식과 <집두시> 수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1

Southern Song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Soldiers — Theme Consciousness and Poetry Visualization of *On the History of Southern Song Dynasty*

Tian, Juan

On the History of Southern Song Dynasty is a series of poems on history written by Jin Kyungmun who participated in Korean voluntary soldier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period in Year RenChen (29th year of the Sexagenary Cycle). There are 69 poems in total and all of them are four-line poems with seven characters per line and express the praises and demerits of historical figures in Southern Song Dynasty. Firstly, the poet's specific evaluations on the emperors, ministers, citizens, and people of Jin Dynasty are reviewed. The results show that both the choice of specifically-described objects and the evaluations of merits and demerits mainly focus on the dealing methods of foreigners, which should be the reflection of metaphor literature of psychological impact brought by the Japanese invasion in Year RenChen. Secondly, the artistic techniques and literary effects of this work are reviewed from two perspectives, the poems as a whole and the individual works in this work.

Key Words : Japanese invasion in Year RenChen, voluntary soldiers, Jin Kyungmun,
Southern Song Dynasty, poems

